

일계인(日系人)의 민족차별 경험과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임 영 언**

제1저자 전남대학교
(yimye@hanmail.net)



최 석 신***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css2772@hanmail.net)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귀환 일계인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유형을 고찰하는데 있다. 19세기 중반 하와이로 떠난 일본인들은 20세기 초기 남미브라질로 향했다. 당시 일본인 이주자들은 농촌지역 출신의 데카세기(돈벌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한지 1세기가 지난 20세기 말, 일본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1990년 이후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일계인 노동자 약 30만 명이 귀환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약 10만 명 가량이 브라질로 귀국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계인들은 민족정체성의 재편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일계인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재편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계인 노동자의 브라질 귀환에 대하여 리먼쇼크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실업문제가 가장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큰 원인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민족차별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도일 전 브라질에서는 모국신화에 따른 일본인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도일 후 일본에서는 일본사회의 민족차별경험으로 일계인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인분석결과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인 정체성', '일계인 정체성', '제3의 혼합형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관분석결과 일계인들은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의 인식이 강할수록 일계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의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브라질에서 일본인 정체성이 강하지만 점차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 경험으로 일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혼합형 정체성을 각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에 따른 사회적 적응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일계인의 일본정착을 위한 일관된 이민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일계인, 데카세기, 민족정체성, 귀환, 민족차별, 사회적 적응, 이민정책

I. 서론

일본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일본산업계의 3D산업에서 일계인의 증가는 1990년대 이후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2000년 전후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붐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브라질 출신 일계인들이 도일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2007년 일본거주 일계인들은 약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 발생한 리먼쇼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일계인들이 일본에서 취업하기 힘들어지자 브라질로 다시 귀환한 일계인들(브라질 국적 외국인노동자)은 약 10만 명에 달했다.¹⁾

그러면 왜 이들 일계인들이 일본에서 남미 브라질로 재귀환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1) 상파울로신문 2012년 4월 27일자 보도. (<http://www.saopauloshimbun.com/index.php/conteudo/show/id/8660/cat/105>(검색일: 2015. 01.19.))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90년 당시 일본정부는 일계인의 브라질 귀환 희망자에 대해 귀국비용을 일본후생노동성이 부담하는 ‘일계인귀국지원사업’²⁾을 2009년 4월부터 1년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³⁾ 이 사업은 일본에서 리먼쇼크를 계기로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남미 일계인노동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자 취업을 포기하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일계인을 대상으로 귀환자 본인에게 30만 엔, 그리고 부양가족에게 20만 엔의 귀국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일본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일계인 귀환제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페루 출신 등 일계인 총 21,675명이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92.5%가 브라질 국적자였다. 이 제도는 당시 “같은 신분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일본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일계인 노동자를 위한 ‘위자료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브라질국회의원연맹 간사장이었던 가와무라 다케오가 조정하여 조항 전문에서 “귀환 일계인은 3년간 정주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어쨌든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일계인 귀국지원사업’은 일본에서 일계인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08년 리먼쇼크까지 약 20년간 실시된 일계인노동자 유입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이민정책 실험의 하나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일계인노동자들이 2008년 일본에서 브라질로 대량 귀국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에는 리먼쇼크로 인한 실업문제에 국한된 것인가? 물론 일계인노동자의 실업문제가 그들의 가장 큰 브라질 귀환배경이 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본사회의 일계인 수용시스템의 부재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민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3D산업에서 노동력부족이 현실화되자 일본정부는 예외로 일계인노동자에 한정하여 이민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일계인 노동자들은 일본산업계의 저변을 지탱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던 것이다. 현재 일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 산업을 위한 일계인의 지대한 공헌 발언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계인 노동자들은 당초 일본정부가 기대했던 일본생활 적응에 있어서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계인들은 일본사회에서 언어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지역사

2) 일계인이란 일본이외의 국가에 이주하여 거주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으로 일계인 중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자를 ‘재일일계인’, 일본 이외에 거주하는 자를 ‘해외일계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30만 명의 일계인을 의미함.

3) 일본정부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일계인 귀국지원사업’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까지 1년간 실시하였음.

회에 서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일계인 자녀들은 언어문제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이 일계인의 일본어구사능력을 채용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계인 노동자들은 일본어 구사문제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대량 발생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후 아직까지 일계인 노동자를 위한 뚜렷한 대안 제시나 이민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현재 일계인 노동자들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현장에서 일계인을 위한 일본어 문제와 사회적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계인노동자의 브라질 귀환 배경에 대하여 종래의 리먼쇼크로 인한 실업문제를 염두에 두고 왜 그들이 모국 브라질로 귀국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민족차별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재형성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II. 기존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의 해외진출은 19세기 중반인 1866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수, 즉 해외체류 일계인 수는 약 26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한 국가 내이든 아니면 외국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론가의 이동은 시작되고 이주지, 특히 모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될 때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의식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일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⁴⁾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아이덴티티(identity)이다. 이것은 자기동일성(self identity)이나 자아동일성(ego identity)이 결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찍이 이러한 정체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장한 학자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Erikson, 1959)이다. 에릭슨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아동일성은 주관적 측면에서 자아의 다양한 통합방법에 대한 자기일치성(혹은 획일성, uniformity)이 타자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일치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에릭슨이 말하는 정체성의 자아동일성 감각이란 내적 일치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개인적 능력이 타자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일치성과

4)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검색일: 2015.01.17))

연속성이 조화됨으로서 발생하는 자신감이라고 주장하였다.⁵⁾

이러한 에릭슨의 자아동일성의 개념과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일본에서 일본인의 정체성 연구에 적용한 학자는 다니(谷, 2004)이다. 그는 인간의 정체성에서 자아동일성을 세분하여 4개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⁶⁾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일치성과 연속성은 자기 불변성 및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감각이다. 둘째, 목적적 동일성은 자기 자신이 지향해야 하는 것, 혹은 희망하고 있는 것 등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는 감각이다. 셋째, 이타적 동일성은 인간이 타자에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 자신과 본래의 자기 자신이 일치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넷째, 심리사회적 동일성은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자신과 주변사회와 조화롭게 잘 적응하고 있다는 자신과 사회관계의 감각이다.⁷⁾

이와 같은 다니와 미야시타(谷冬彦·宮下一博, 2004)에 의한 4개의 정체성 하위개념을 종합해보면, 결국 인간의 정체성이란 자기일치성, 목적동일성, 이타적 동일성, 심리사회적 동일성의 종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거나 결핍될 경우 정상적인 정체성 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대하여 오카모토(岡本, 2002)의 연구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직업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은 청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고민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다운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되며 라이프 사이클의 전환기 때마다 반복되는 인생의 중요한 화두라는 것이다.⁸⁾

이렇게 볼 때 결국 한 인간의 삶과 자기다운 삶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아 혹은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정체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낸 연구자는 돈(Don Hinkelman)과 이시카와(石川園代)이다. 이들은 정체성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다음 <표 1>와 같이 10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한 개가 아닌 이들

5)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小此木啓吾編訳(1973) 『自我同一性』 誠信書房.

6) 谷冬彦·宮下一博(2004) 『さまよえる青少年の心—アイデンティティの病理—発達心理学的考察』 北大路書房、pp.73-74.

7) 이 논문에서 정체성은 인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민족정체성은 민족집단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8) 岡本祐子(2002) 『アイデンティティ生涯発達論の射程』 ミネルバ書房.

요소의 집합 혹은 조화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정체성이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⁹⁾

〈표 1〉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항목¹⁰⁾

정체성 구성요소	정체성 구성요소의 정의
지리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 태어나 자란 장소
문화	자신이 속한 문화(재일코리아인, 혹은 일계인 문화 등)
민족	자신이 속한 민족집단
계급	상류계급, 중류계급 등의 의식
종교	자신의 종교
직업	자신의 직업
성	자신의 성이나 성역할
조직	자신이 속한 회사 등의 조직
가족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식
개인	자신의 성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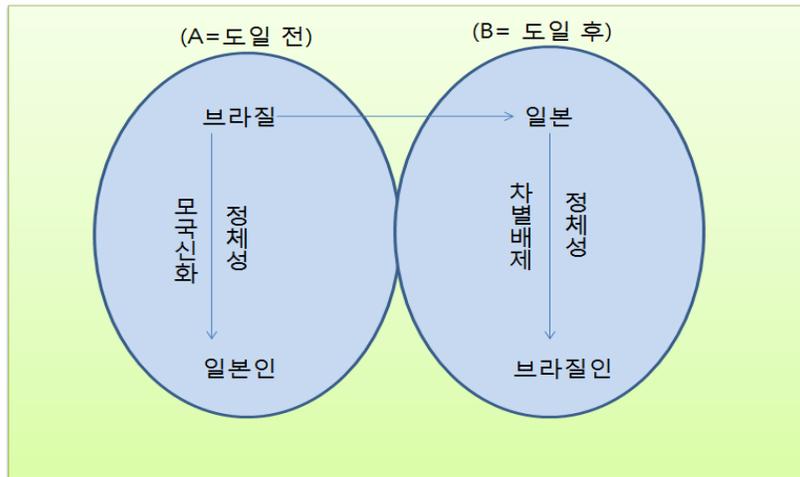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릭슨의 4개의 하위개념의 동일성 중 일계인들이 자기일치성과 목적동일성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거주국에서 이타적 동일성과 심리사회적 동일성의 거부나 거절에 의해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하위분석단위로서 돈(Don Hinkelman)과 이시카와(石川園代)가 지적한 10개의 정체성 구성 항목 중 이타적 동일성과 심리사회적 동일성에 해당되는 문화, 민족, 직업, 조직, 가족,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의 이타적 동일성과 심리사회적 동일성의 거부, 즉 민족차별(감정, 문화, 의사결정, 민족, 개인적 특성)에 의해 어떠한 민족정체성을 재형성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일계인의 정체성 형성 모델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그들의 자기정체

9) ダン・ヒンクルマン (Don Hinkelman) · 石川園代(2005) 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基礎Ⅰ 多文化ネット (<http://www.ta-bunka.net/info/j.html>(rjatorldf: 2015.01.17))

10) 田中真奈美(2008) 「海外生活がアイデンティティに与える影響—あるアメリカ在住日本人の経験を通しての考察—」 『東京未来大学研究紀要』 第1号、p.90.

성이 도일 전 브라질에 거주할 때는 모국신화에 따른 일본인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도일 후 일본에 거주할 때는 일본사회의 차별경험으로 브라질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그림 1〉 도일전후 일계인의 민족정체성

Ⅲ.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4년 2월에 실시한 일본 현지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설문문항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설문문항별 혹은 민족차별 유형별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성별, 연령별, 체류자격별 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의 비교, 독립표본 t-Test(차이분석), 일원분산 분석(ANOVA),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알파값=.05로 설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21.0을 사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민족정체성 관련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5=매우 그렇게 생각함)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알파 계수는 .934로 나타나 해당 질문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인분석결과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어 이들 문항을 모두 합산한 후 해당 질문항목수로 나누어 도출된 민족차별의 평균을 활용하여 감정적, 문화적,

의사 결정적, 민족적, 개인적 특성별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일제인의 민족차별과 민족정체성은 기존연구(Don Hinkelman · 石川園代, 2005)의 결과 10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4개의 변인들을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민족정체성 관련 27개의 질문항목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측정과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평가기준으로 고유값(eigen)은 1.0,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3.0으로 설정하여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거주하는 일제인의 민족차별이 민족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민족차별 평균을 독립변수로 하고 민족정체성의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IV. 일제인 민족차별에 따른 민족정체성 형성과 정체성 유형에 관한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민족정체성의 평균차이(ANOVA)분석

이 논문에서는 일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일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민족정체성의 평균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제인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 교육수준별, 연수입별, 가족경제활동인구별, 체류자격별, 세대구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직업별, 국적별, 자녀의 교육적 지지별, 일본거주기간별, 지위유무별, 결혼여부별, 단체활동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차이분석결과를 보면 t-Test결과 남성과 여성간의 민족정체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의 전체평균에서는 남녀 간의 성별 차이분석결과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인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연수입별 ANOVA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40대 일제인의 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인의 민족정체성 평균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제인의 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민족정체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계인의 교육수준과 민족정체성의 차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육정도에 따라 일본사회의 적응도(동화)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로버트 무어헤드(Robert Moorehead, 2014)의 기존연구에서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도일한 부모세대는 일계인의 정체성이 강하고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일계인 2세의 경우 일본인의 민족정체성에 가까워 일계인 자녀와 부모세대간의 의사소통이 교육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¹⁾ 결국 그는 거주국에서 교육의 효과가 일본사회에서 일계인들의 민족정체성에 있어서 동화와 분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민족정체성의 차이분석

설문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or T	P
성별	남성	35(35.0)	2,742	.742	1,083	.281
	여성	65(65.0)	2,566	.787		
연령	10대a	8(8.0)	1,514	.781	4,622	.001
	20대b	11(11.0)	2,583	.787		
	30대b	37(37.0)	2,758	.754		
	40대b	24(24.0)	2,836	.516		
	50대b	14(14.0)	2,633	.731		
	60대 이상b	6(6.0)	2,549	.828		
교육수준	초등졸업ab	7(7.0)	2,159	.876	2,951	.016
	중등졸업a	57(57.0)	2,531	.797		
	고등졸업b	18(18.0)	3,148	.386		
	2년제 대학졸업ab	2(2.0)	3,167	.498		
	4년제 대학졸업ab	11(11.0)	2,700	.654		
	기타ab	4(4.0)	2,426	.700		
연수입	200만 엔 이하a	19(19.0)	2,240	0,847	2,568	.043
	200~400만 엔ab	55(55.0)	2,669	0,792		
	400~600만 엔b	21(21.0)	2,912	0,449		
	600~800만 엔ab	3(3.0)	2,099	0,506		

11) Robert, Moorehead(2014) "OATHS, TESTS, AND SEMI-ADAPTING: TESTING NIKKEIJIN LOYALTY IN JAPAN",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22-144.

설문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or T	P
	800~1000만 엔ab	2(2.0)	3,000	1,414		
가족경제 활동인구	1명a	37(37.0)	2,758	0,706	2,624	.039
	2명ab	45(45.0)	2,711	0,765		
	3명ab	12(12.0)	2,157	0,878		
	4명ab	3(3.0)	1,864	0,600		
	5명b	2(2.0)	2,093	0,131		
체류자격	국적취득자a	2(2.0)	1,278	0,393	12,187	.000
	영주자b	41(41.0)	2,996	0,548		
	정주자a	55(55.0)	2,403	0,800		
세대구분	1.5세a	25(25.0)	2,333	0,757	3,559	.017
	2세b	19(19.0)	3,024	0,561		
	3세ab	44(44.0)	2,564	0,843		
	기타ab	12(12.0)	2,849	0,538		
종교여부	기독교(개신교)b	4(4.0)	3,250	0,289	4,299	.007
	가톨릭ab	44(44.0)	2,630	0,854		
	불교a	28(28.0)	2,282	0,784		
	기타b	24(24.0)	2,923	0,412		
향후 일본 체류여부	있다c	17(17.0)	3,105	0,368	19,549	.000
	없다b	60(60.0)	2,769	0,614		
	잘 모르겠다a	23(23.0)	1,908	0,898		

다음은 일계인의 경제활동인구와 민족정체성과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에서 일계인의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원인을 추정해보면 일계인들이 일본에 데카세기(出稼ぎ: 돈벌이 노동자)목적으로 도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경우 일계인보다는 일본인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일계인의 체류자격별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계인 정주자보다 일계인 영주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일계인 대부분이 귀화자보다 영주자 및 정주자가 많은 이유는 1990년 6월에 실시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으로 브라질 출신 일계인들이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¹²⁾ 세대구분별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보면 일본에서 태어난 일계인 1.5세보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일계인 2-3세의 민족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이주한 후 정체성에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일본에서 태어난 1.5세의 경우 일계인의 정체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술한 일계인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민족정체성의 차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계인의 종교별 정체성의 차이는 기독교나 불교보다는 가톨릭 신자들의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느 측면에서 브라질이 전통적인 가톨릭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일본체류여부에 따른 일계인의 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 일계인의 경우 민족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체류 의사가 있는 일계인일수록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나 일계인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 민족정체성의 평균비교분석

이 논문에서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질문항목은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표 3>은 이들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의 질문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및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민족정체성 항목 중 평균값이 3.0이상으로 높은 항목만을 살펴보면 “2. 주위에 일본인들이 있는데 일계인들끼리 논쟁은 좋지 않다. 3. 나는 일본요리를 각별히 좋아한다. 7. 일계인들이 브라질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일계인들은 일본인과 교류하여 완전한 일본인으로 동화되는 것이 최선이다. 16. 일계인은 일계인들과 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등이다. 이러한 일계인 민족정체성 평균값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견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즉 하나는 일계인들이 3번이나 10번과 같이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7번이나 16번과 같이 일계인만의 정체성유지와 문화유지를 강조하는 유형이다.

<표 3> 민족정체성에 관한 빈도분석 및 평균분석(N=100, 괄호 안: %)

정체성 질문항목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보통	그렇게 생각함	매우 그렇게 생각함	평균	표준 편차
1. 좋은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아이들이다.	33(33.0)	17(17.0)	10(10.0)	22(22.0)	18(18.0)	2.75	1.546
2. 주위에 일본인들이 있는데 일계인들끼리 논쟁은 좋지 않다.	21(21.0)	19(19.0)	7(7.0)	41(41.0)	12(12.0)	3.04	1.392

12) 임영언외(2013) 『일계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 북코리아, pp.26-27.

정체성 질문항목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보통	그렇게 생각함	매우 그렇게 생각함	평균	표준 편차
3. 나는 일본요리를 각별히 좋아한다.	23(23.0)	9(9.0)	24(24.0)	23(23.0)	21(21.0)	3.10	1.446
4. 일계인들이 전혀 없는 지역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안심된다.	31(31.0)	28(28.0)	21(21.0)	15(15.0)	5(5.0)	2.35	1.209
5. 부모의 노후문제는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	49(49.0)	21(21.0)	17(17.0)	9(9.0)	4(4.0)	1.98	1.180
6. 일본인들의 차별을 예상하지 않고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일계인들은 바보이다.	36(36.0)	35(35.0)	14(14.0)	13(13.0)	2(2.0)	2.10	1.096
7. 일계인들이 브라질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23.0)	11(11.0)	22(22.0)	31(31.0)	13(13.0)	3.00	1.371
8. 일계인들은 일본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많은 기회들을 조상들 때문에 박탈당하고 있다.	34(34.0)	24(24.0)	11(11.0)	22(22.0)	9(9.0)	2.48	1.389
9. 일계인공동체의 인간관계는 비교적 따뜻하고 끈끈하다.	30(30.0)	31(31.0)	19(19.0)	5(5.0)	15(15.0)	2.44	1.366
10. 일계인들은 일본인과 교류하여 완전한 일본인으로 동화되는 것이 최선이다.	21(21.0)	16(16.0)	12(12.0)	43(43.0)	8(8.0)	3.01	1.330
11.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본심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25(25.0)	16(16.0)	23(23.0)	17(17.0)	19(19.0)	2.89	1.449
12.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44(44.0)	39(39.0)	8(8.0)	2(2.0)	7(7.0)	1.89	1.109
13. 일본인은 일계인과 비교하여 사귀기 힘들다.	25(25.0)	42(42.0)	21(21.0)	7(7.0)	5(5.0)	2.25	1.067
14.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어른이 되면서 일본어학교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17(17.0)	24(24.5)	30(30.0)	21(21.0)	6(6.0)	2.74	1.160
15.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친척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20(20.0)	30(30.0)	14(14.0)	25(25.0)	11(11.0)	2.77	1.325
16. 일계인은 일계인들과 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21(21.0)	19(19.0)	10(10.0)	37(37.0)	13(13.0)	3.02	1.392
17. 한번 일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계인이다.	17(17.0)	28(28.0)	26(26.0)	21(21.0)	8(8.0)	2.75	1.201
18. 일계인들이 일본문화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15(15.0)	39(39.0)	23(23.0)	18(18.0)	5(5.0)	2.59	1.102

정체성 질문항목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보통	그렇게 생각함	매우 그렇게 생각함	평균	표준 편차
19. 일본은 위대한 예술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문명에 필요한 공헌을 해왔다.	20(20.0)	22(22.0)	12(12.0)	35(35.0)	11(11.0)	2.95	1.351
20. 일본문화에 비호의적인 일계인은 잘못된 것이다.	26(26.0)	23(23.0)	16(16.0)	21(21.0)	14(14.0)	2.74	1.411
21. 은혜를 갚지 않는 인간은 좋다고 말할 수 없다.	20(20.0)	23(23.0)	12(12.0)	30(30.0)	15(15.0)	2.97	1.396
22. 차별받고 당황하는 것 보다 그런 장소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21(21.0)	25(25.0)	22(22.0)	25(25.0)	7(7.0)	2.72	1.248
23. 일본영화를 보는 것이 재미있다.	18(18.0)	30(30.0)	16(16.0)	28(28.0)	8(8.0)	2.78	1.260
24. 자주 질문을 하는 인간은 전체 진행에 방해된다.	26(26.0)	32(32.0)	19(19.0)	12(12.0)	11(11.0)	2.50	1.299
25. 일계인만의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29(29.0)	30(30.0)	27(27.0)	11(11.0)	3(3.0)	2.29	1.094
26. 개인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가족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0(20.0)	25(25.0)	23(23.0)	28(28.0)	4(4.0)	2.71	1.192
27. 일계인과 일본인과의 결혼은 장려해서는 안 된다.	28(28.0)	45(45.0)	15(15.0)	10(10.0)	2(2.0)	2.13	1.002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의 분포에 따라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의 유형을 분류하면 일본형과 일계인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에서 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3. 일계인의 민족정체성 요인분석

다음 <표 4>는 민족정체성에 관한 27개 설문항목을 동시에 요인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주축요인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 이상인 것들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요인추출을 실시한 결과 요인은 6개로 요약되었으나 추출하는 요인을 3개로 제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민족정체성 요인분석의 설명된 총분산을 바탕으로 이들 3개의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58.4%정도였다. 이러한 설명력의 비율은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의 요인분석에 따른 유형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민족정체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민족정체성 질문항목	요인분석결과		
	제1요인 (일본인 정체성)	제2요인 (일계인 정체성)	제3요인 (혼합형 정체성)
민족정체성19	.867	.087	.054
민족정체성21	.810	.052	.171
민족정체성3	.758	.348	-.122
민족정체성20	.753	-.112	.248
민족정체성11	.700	.480	.028
민족정체성2	.646	.332	.281
민족정체성7	.640	.319	.300
민족정체성10	.619	.493	.119
민족정체성22	.566	.356	.290
민족정체성14	.479	.462	.185
민족정체성26	.473	.379	.458
민족정체성4	.468	.386	.076
민족정체성16	.256	.842	.103
민족정체성24	-.085	.682	.185
민족정체성15	.320	.674	.175
민족정체성17	.311	.669	.097
민족정체성23	.343	.531	-.015
민족정체성6	.165	.453	.347
민족정체성5	.217	.436	.097
민족정체성8	.095	.284	.704
민족정체성12	.088	-.246	.672
민족정체성9	.060	.266	.610
민족정체성25	-.077	.522	.607
민족정체성27	.086	-.072	.584
민족정체성13	.173	.206	.547
민족정체성1	.325	.319	.479
민족정체성18	.325	.299	.384

주) 요인추출 방법: 주축 요인추출,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한편 위의 각 요인분석에 포함된 평가항목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3개의 요인을 각각 ‘일본인 정체성’, ‘일계인 정체성’, ‘제3의 혼합형 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요인별 Cronbach 알파값은 0.5이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평가항목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계인 민족정체성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유형	문항	문항 수
제1요인	일본인 정체성	2,3,7,10,11,19,20,21,22	9
제2요인	일계인 정체성	15,16,17,23,24	5
제3요인	혼합형 정체성	8,9,12,13,27	5

위의 <표 5>와 같이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일계인의 정체성은 ‘일본인 정체성’, ‘일계인 정체성’, ‘제3의 혼합형 정체성’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요인분석결과에 의한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인 지향형, 일계인 지향형, 제3의 혼합 지향형 등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3개 요인에 대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일계인의 민족차별과 민족정체성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사회에서 일계인의 민족차별과 민족정체성 형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족차별평균과 민족정체성평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결과는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일계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사회의 일계인에 대한 감정적 차별, 문화적 차별, 민족적 차별이 강할수록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회에서 일본인들이 일계인에 대하여 감정적인 무시, 문화정보 단절, 서투른 일본어와 외모에 의한 차별경험을 당할수록 일계인들의 민족정체성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민족차별 요인과 민족정체성의 상관분석

민족차별 요인		감정적 차별	문화적 차별	개인적 특성 차별	민족적 차별
민족정체성 평균	Pearson 상관계수	.215*	.403**	.160	.311**
	유의확률 (양쪽)	.031	.000	.113	.002
	N	100	100	100	100

주) 상관계수 **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7〉 민족차별 요인과 민족정체성평균의 회귀분석

민족정체성 평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14	.210		8.627	.000
감정적 차별	-.093	.074	-.162	-1.260	.211
문화적 차별	.285	.084	.431	3.381	.001
개인적 특성 차별	.030	.113	.026	.266	.791
민족적 차별	.224	.115	.200	1.945	.055
F					6.133(<0.000)
R ²					.205

다음은 일제인의 민족차별 경험요인(감정적 차별, 문화적 차별, 개인적 특성 차별, 민족적 차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민족정체성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위의 〈표 7〉과 같다.

회귀분석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6.133(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수준 5% 정도에서 유의하고, R²은 0.205로 설명력은 낮은 편이지만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회귀계수의 t검정 결과 일제인의 문화적 차별은 유의확률이 각각 0.001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민족차별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적 차별로 나타났다.

일제인의 민족적 차별은 유의수준 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거의 5%에 가까워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제인의 민족차별요인이 민족정체성 평균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문화적 차별(0.431) > 민족적 차별(0.200) > 감정적 차별(-0.162) > 개인적 특성 차별(0.0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향요인 가운데 민족차별 요인들 중 감정적

차별은 민족정체성 평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일계인들이 문화적 차별을 강하게 느낄수록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서 감정적 차별을 강하게 느낄수록 민족정체성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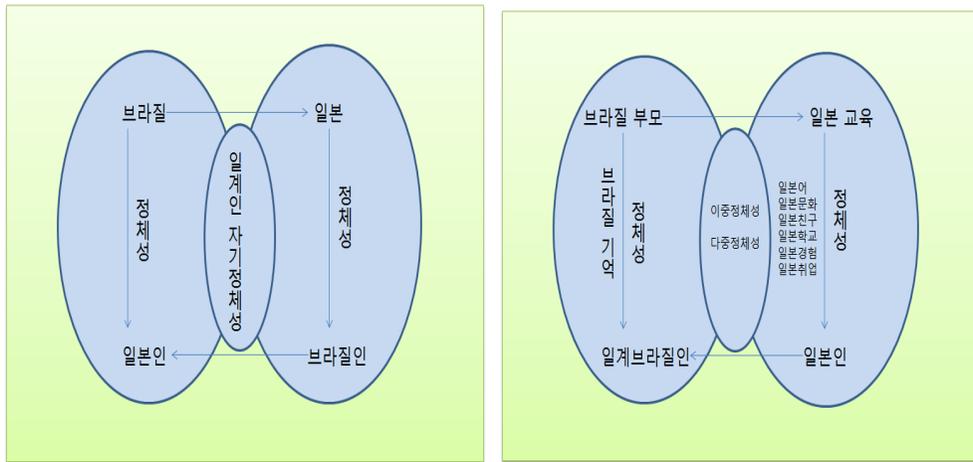
다음은 논문의 지면관계상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의 일계인에 대한 민족정체성 요인(일본인 정체성, 일계인 정체성, 혼합 정체성)을 독립변수로 민족차별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26.863(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고, R^2 은 0.462로 설명력은 어느 정도 높은 편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회귀계수의 t검정 결과 일본인 정체성, 일계인 정체성, 혼합 정체성은 유의확률이 각각 0.022, 0.000, 0.000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민족차별평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본인 정체성, 일계인 정체성, 혼합 정체성 유형으로 나타났다.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서 영향력이 큰 정도는 혼합 정체성(0.516) > 일계인 정체성(0.395) > 일본인 정체성(-0.17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민족차별 평균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혼합형 정체성이 강할수록 민족차별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계인들이 일본인 정체성이 강할수록 민족차별을 약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계인들이 일본에서 민족차별을 느끼는 경우 일본인이나 일계인 정체성을 선택하기보다는 생존전략으로서 혼합형 정체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일계인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과 유형

일본에서 일계인의 민족차별에 따른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보면 일계인 1세와 일계인 2세의 정체성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계인 1세들의 경우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도입하기 전에는 일본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 때문에 일본인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고 브라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도입 후에는 일본사회에서 각종 민족차별경험으로 인하여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브라질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일계인 1세의 자기정체성과 일계인 2세의 이중정체성 형성 과정

결국 일계인 1세의 경우 일본이나 브라질에서 일계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은 변함없겠지만 향후 일본에 정착할 경우 일본인도 일계인도 아닌 ‘자기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계인의 자기정체성은 독일 전에는 일본인의 자손인 ‘일계인’으로서 성향이 강하지만 독일 후 일본인과는 대항적 개념으로서 브라질로부터 독일한 일계인과 비일계인을 포함하는 ‘브라질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국 일계인들은 일본인과 일계인 중 어느 쪽도 속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일계인만의 ‘자기정체성’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계인 자녀인 일계인 2세들은 향후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생활하게 된 일계인 2세들은 일본사회의 적응과정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인 학생들과 거의 유사한 생활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일계인 2세들은 브라질문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그들 부모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한 브라질문화에 대한 추억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장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브라질인 혹은 일본인이라는 이중정체성(다중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고찰한 결과에 따라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을 분류하면 다음 〈표 8〉과 같이 제3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일계인의 민족정체성 유형

정체성 유형		일계인 민족정체성
제1유형	일본인 지향 정체성	일본이나 브라질에서 일본인 정체성
제2유형	일계인 지향 정체성	일본이나 브라질에서 일계인 정체성
제3유형	혼합형 정체성	일본정착 지향의 자기 정체성 일본인과 브라질인이라는 일계브라질인으로서의 이중정체성(다중정체성)

현지에서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일계인의 정체성 유형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일본이나 브라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지향하는 일본인 정체성이다. 1990년 전후 도일하여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일계인 대상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S씨는 일본생활 20년을 초과하였다. 그는 일계인의 일본인 정체성 지향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¹³⁾

“1990년 이후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정부가 생활지원도 해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어를 못해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계인들은 힘든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일본에 돈 벌이하러 왔으면 근면성실한 일본인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철저히 일본사회에 융합될 필요가 있다.”

즉, 그는 일계인들이 일본에 왔으면 일계인의 생활문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일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상들이 일본인이었으니까 일본의 모든 문화와 규칙에 따르고 필요하면 다시 일본 국적으로 귀화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유형은 일본이나 브라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일계인으로 강조하는 일계인 정체성이다. 군마 현에서 일계인을 대상으로 브라질식당을 운영하는 H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¹⁴⁾

“저는 90년대 초기 도일하였는데 일본에 친척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일본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만나고 싶어 일본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친척들이 왜 우리를 만나러 왔느냐고 묻더군요. 혹시 돈이 필요해서 만나려고

13) 일계인 세르비썬 마쓰코 일계인 슈퍼마켓 및 빵집운영, 2014년 2월 21일(금) 인터뷰.

14) 일계인 아사노 겐지 PAULLO'S LISTORANT 운영, 2014년 2월 22일(토) 인터뷰.

하느냐고 해서 너무 슬픈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 친척들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일계인 일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정부도 처음에는 자기를 조상으로서 일계인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우리들을 재일외국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일본정부가 필요해서 우리를 노동자로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필요 없으니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등 일본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계인들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서 외국인차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사 결과를 보면 일계인들은 브라질에서는 그들만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일본인으로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일본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서 일계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유형은 일본인도 일계인도 아닌 제3의 혼합형 정체성, 혹은 일본인이자 동시에 일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중(다중)정체성을 지칭한다. 동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계인 A씨에게 자기의 정체성이 일본인인지 아니면 일계인에 가까운지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¹⁵⁾

“초국적인 글로벌시대 민족정체성의 경계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히 어떠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민족정체성을 묻는다면 저는 100% 일계인이자 100%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 조상이 일본인이고 일계인으로서 도일했지만 초국적인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느 한쪽의 민족정체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그것이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이러한 인터뷰조사 결과는 일계인들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100% 긍정도 부정도 아닌 초국가적인 글로벌시대 이중정체성, 혹은 다중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면접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그들 모국 브라질에서의 삶, 일본에서 차별경험에 의해 일본인(귀화) 지향형, 일계인 지향형, 이중정체성(혼합형)등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일계인 안젤로 이시이, 2014년 2월 20일(목) 인터뷰.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전후 독일한 일계인 노동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량 브라질로 귀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의 재편성을 가져오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일계인 노동자의 브라질 귀국배경에 대하여 리먼쇼크로 인한 실업문제가 가장 큰 설득력을 얻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민족차별에 따른 그들의 민족정체성의 재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2014년 2월 일본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된 일계인 대상의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에릭슨(Erikson, 1957)에 의하면 인간의 자기정체성은 자기일치성, 목적동일성, 이타적 동일성, 심리사회적 동일성의 종합으로 형성되며 이들 중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거나 결핍될 경우 정상적인 정체성 형성이 어렵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계인의 정체성이 자기일치성과 목적동일성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거주국에서 이타적 동일성과 심리사회적 동일성의 거부나 거절(혹은 민족차별경험)에 의해 어떠한 민족정체성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계인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 교육수준별, 연수입별, 가족경제활동인구별, 체류자격별, 세대구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독일 전 브라질에 거주할 때는 모국신화에 따른 일본인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독일 후 일본에 거주할 때는 일본사회의 민족차별경험으로 인하여 일계인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인분석결과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인 정체성’, ‘일계인 정체성’, ‘제3의 혼합형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관분석결과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 인식을 강하게 느낄수록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즉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사회의 일계인에 대한 감정적 차별, 문화적 차별, 민족적 차별을 강하게 느낄수록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회귀분석결과, 일본에서 일계인들이 여러 가지 민족차별 중에서도 문화적 차별이 민족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계인들은 일본에서 문화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계인의 일본 귀환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형성은 브라질에서 태어나 자란 일계인 1세대들은 도입하기 전 일본인의 자손이라는 모국신화에 따른 일본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이 강하지만 점차 일본사회에서 점차 민족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일계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 태어나 모국브라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계인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간접 경험에 따라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이중정체성 혹은 다중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영언외. 2013. 『일계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 북코리아.
- 岡本祐子. 2002. 『アイデンティティ生涯発達論の射程』. ミネルバ書房.
- 谷冬彦·宮下一博. 2004. 『さまよえる青少年の心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病理ー発達心理学的考察』. 北大路書房.
- 田中真奈美. 2008. “海外生活がアイデンティティに与える影響ーあるアメリカ在住日本人の経験を通しての考察ー.” 『東京未来大学研究紀要』 第1号 90.
- ダン·ヒンクルマン (Don Hinkelman) ·石川園代. 2005. 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基礎 I 多文化ネット ([http://www.ta-bunka.net/info/j.html\(rjatorldf:2015.01.17.\)](http://www.ta-bunka.net/info/j.html(rjatorldf:2015.01.17.))).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小此木啓吾編訳. 1973. 『自我同一性』. 誠信書房.
- Robert, Moorehead. 2014. “OATHS, TESTS, AND SEMI-ADAPTING: TESTING NIKKEIJIN LOYALTY IN JAPAN.”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2-144.
- 상파울로신문 2012년 4월 27일자 보도 (<http://www.saopauloshimbun.com/index.php/conteudo/show/id/8660/cat/105>(검색일: 2015. 01.19.)).
- 일본외무성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검색일: 2015.01.17.)).

● 투고일: 2015. 1. 26. 심사일: 2015. 2. 3. 게재확정일: 2015. 2. 9.

A Study on the Ethnic Identity Formation and Nikkejin's Distinction Experience

Yim Young Eon, Choi Soug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me return Nikkeijin's ethnic identity formation and type.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Japanese people departed to Hawaii and then i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they headed to South American Brazil. In Dekasegi most of lowlanders and labor workers were Japanese emigrants from rural areas. In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fter 100 years of migration there were changes with industrial structure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of Japanese. From second half of 1990 approximately 300,000 of Nikkeijin which lived in Brazil returned back to Japan.

Because of financial crisis in 2008 they had opportunity to comeback. Approximately 100,000 people returned back to Brazil. This study is examining closely cause of these Nikkejin's ethnic identity formation and reconfigur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ikkeijin's ethnic identity intends Japanese's identity in Brazil and intended Nikkeijin's identity to distinction experience of Japanese society in Japan.

Second,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Nikkeijin's ethnic identity intended Japanese identity, Nikkeijin identity, Mixed type identity etc.

Third,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Nikkeijin is encountering ethnic distinction on Japanese society, was expose that nikkeijin's identity is strong.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Nikkeijin means failure of social acculturation by ethnic distinction on Japanese society. Also, it is disproving that Japanese government is not establishing immigration policy for Nikkejin's Japanese adaptation.

<Key words> Nikkeijin(Japanese Diaspora), Dekasegi, Return Migration, Ethnic Distinction, Social Acculturation, Immigration Policy